

# 한·미간 첨단 부품·소재 성능평가법 공동개발

기술표준원, 미국소재시험연구원 (ASTM)과 표준화 MOU 체결

첨단 부품, 소재 시험·검사·분석 등 평가 분야에서 국제표준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소재시험연구원 Jim Thomas 회장이 지난 5월 12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을 방문하여 양국 표준화기관간 부품소재 시험검사방법 표준화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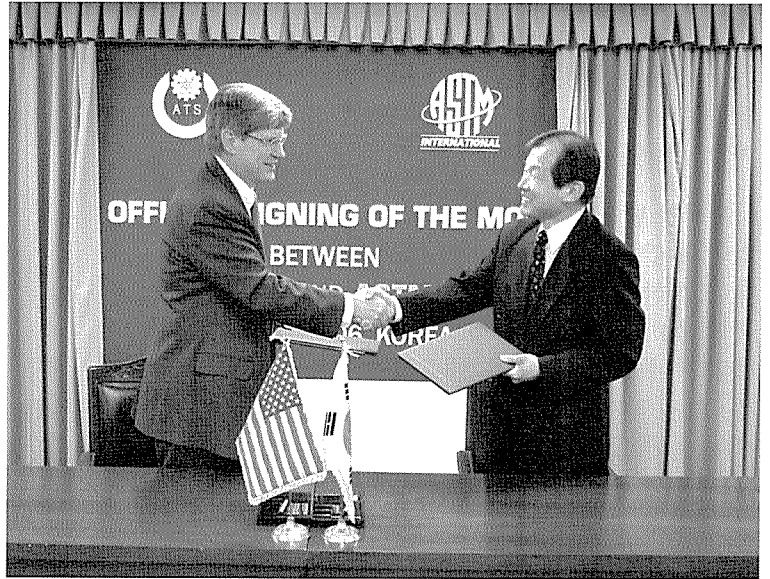
MOU체결로 IT, BT, NT 등 첨단 분야의 부품·소재의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방법에 대한 정보교환, 공동연구, 기술위원회 참여 등을 통한 양국간 상호협력이 가능해져 우리 부품소재산업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전기를 마련함은 물론 첨단 부품소재의 대외 수출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김혜원)은 5월 12일 미국 재료시험연구원(ASTM, 회장 James A. Thomas)과 기초부품소재에 대한 시험·검사·분석 분야에서의 표준화활동에 대한 정보교환, 양기관의 표준을 제정·심의하는 기술위원회에 상호참가 등을 통한 포괄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ASTM(American Society for Testing & Materials)은 금속, 석유화학, 건축자재, 원자력 등 기초부품소재분야의 시험·검사·분석방법에 대한 표준화를 연구·개발·보급하고 있는 전문 연구기관으로 1898년에 미국에서 설립되었으며, 전세계에서 거래되고 있는 첨단 기초부품소재의 성능 및 품질을 평가하는 시험검사시 ASTM이 개발한 규격을 사용하고 있다.

한국이 ASTM과 MOU를 체결함에 따라 최근 모든 산업에서 사용되는 BT, IT, NT 등 첨단기술 분야의 신소재부품의 시험검사방법에 대한 최신의 규격 정보를 손쉽게 입수할 수 있게 되어 부품소재분야를 연구개발하고 있는 연구소와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 우리나라 업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ASTM에서 개발한 최신의



시험검사방법에 대한 규격열람, 첨단 신소재 개발 및 평가에 대한 양국 전문가간 공동연구, 미국 기술위원회에 우리 전문가 참여 등이 가능해져 상대적으로 낙후된 우리나라의 부품·소재산업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킬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 ASTM 개요 (미국재료시험학회,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

### 설립연도 및 목적

- 미국재료시험협회(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International)는 1898년 설립된 민간기관
-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임의 표준, 관련 기술정보 및 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을 위해 설립

### 조직 운영 및 인원, 예산

- 표준위원회, 이사회, 본부, 기술위원회 등으로 구성
- 보통 1년에 2회 정도 표준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식 표준 승인
- 22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표준위원회 운영을 감독